



감성안전의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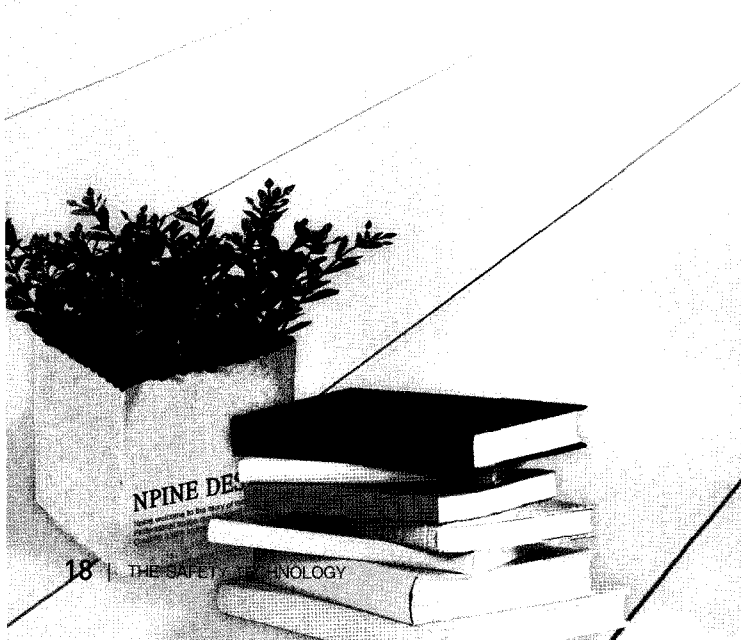
(주)에스디 이석주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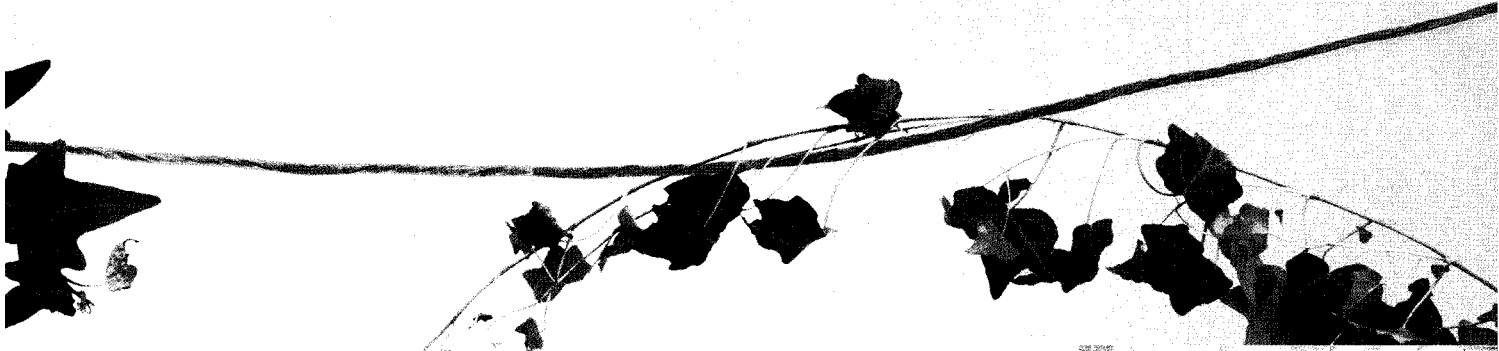
취재 · 사진 | 김성대 기자(gishu002@safety.or.kr)



(주)에스디는 레피드진단시약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로서 1999년 창립하였고 많은 기술개발로 창립 4년만에 세계최초로 말라리아 진단시약을 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7년에는 인도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현재는 Alere사와 M&A되어있는 상태이다. (주)에스디는 꾸준한 생산량 증가로 본사인 기흥공장 인근에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었고 현재 이전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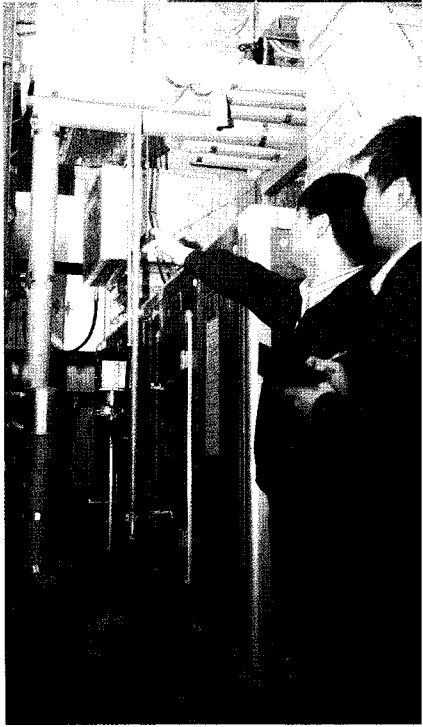
이런 거침없는 성장의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아닌 철저한 안전관리라고 이 회사 이석주 팀장은 말한다. 이곳 (주)에스디에서 안전업무 전반을 이끌어 가고 있는 이석주 공무팀장을 만나보았다.





무의식에 실천하는 안전

이석주 팀장은 사회에 나오면서부터 공무업무를 맡았다. 사회 초년생으로 입사한 제약회사에서도 공무업무를 담당하였다. 공무업무를 하다보면서 안전업무도 겸하게 됐다. 주로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했는데 요즘 설비는 대부분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안전에도 관계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것이 안전업무인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이석주 팀장은 이곳 회사에 입사한지는 약 2년이 지났다. 이곳 회사로 오면서 그동안 은연중 행하고 있던 안전업무를 이제는 정식으로 담당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안전업무가 부담이 되었다고 한다. 아니 부담이라기보다는 무엇인지 몰라 답답해 했다고 한다. 그러나 기존에 자신이 하던 업무가 바로 안전업무였다는 것을 차츰 알게 되었다고 한다. 안전은 이렇게 저렇게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어 자신도 모르게 실천하는게 진정한 안전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다.



감성안전의 실천

본인은 운이 좋아 은연중에도 안전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일반 근로자들은 그러지 아니함이 안타깝다고 한다. 일부 근로자들은 안전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잘 지키지 않고 또 실천하려고도 하지 않아 무척 안타깝다고 한다. 그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기는 대부분 경험하고 난 이후다. 그러나 안전의 중요성을 경험했다는 것은 이미 사고가 난 다음이라 그 중요성을 인식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이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사고사례가 담긴 자료로 교육도 해보고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말해보기도 했지만 그때 뿐. 정작 안전을 몸에 배이게 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었다고 한다. 고민 끝에 찾은 방법은 요즘 대두되고 있는 감성안전이었다고 한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니 안전도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감성안전이 어렵지는 않았다고 한다. 원체 쾌활한 성격이었기에 현장사람들과 친숙했다. 친숙한 사람들에게 가족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 먼저 사고 없이 안전해야한다는 내용의 감성안전을 실시했다고 한다. 또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이에게 질책보다는 지키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듣고 그것을 개선해 주었다고 한다. 이런 이석주 팀장의 노력에 현장 근로자들은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안전을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가장 큰 위험요소는 사람

현장의 위험성을 묻는 질문에 이석주 팀장은 '가장 큰 위험요소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요즘 기계설비는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잘만 활용하여도 현장의 위험은 거의 없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이 문제이다. 안전장치가 생산에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어떤 이들은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기능을 해지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 안전이고 현장의 위험요소를 없애는 길이라고 한다. 이는 비단 (주)에스디에서만만의 일은 아닐터, 모든 안전하는 사람들이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런 사람들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석주 팀장은 매분기 생산부문 각장(기장, 반장, 기감 등)과 편안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회의석상이 아닌 편안한 곳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노트나 자료 등은 일체 없다. 이런것들이 있으면 편안하지가 않고 편안하지 않으면 현장의 살아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 중 개선점이 있을 경우 때로는 남들이 모르게 때로는 남들이 의식도록 일을 처리한다고 한다.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 제공

현장 근로자들에게 감성적으로 다가서서 안전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외부교육도 중요하다고 그는 말한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여러 번 들게되면 귀찮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인데, 안전이라고 다르지 않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때문에 그는 현장 근로자들의 사고 전환을 위해 가끔씩 많은 인원을 외부 교육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부 교육을 다녀오면 지역회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안전정보가 공유되고 종국에는 안전문화가 확산되기 때문이다. ☺

